

# 時間 依存名詞 ‘중(中)’에 대하여

석 혜 매\*

## I. 序論

韓國語의 漢字語 ‘중(中)’은 ‘속이나 가운데’의 의미를 나타내는 空間的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時間的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중(中)’ 형태가 一般名詞로 쓰이거나<sup>1)</sup> 語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sup>2)</sup> 본고는 時間的인 개념으로 쓰이는 依存名詞 ‘중(中)’의 意味와 機能을 살펴보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時間的인 개념으로 쓰이는 依存名詞 ‘중(中)’에 대해 그 의미가 사전에 따라 약간 다르게 기술된 부분도 있는데,<sup>3)</sup>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1)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음과 같은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① 등급, 수준, 차례 따위에서 가운데: 성적이 중은 된다.

② 장기관의 끝으로부터 둘째 가로줄.: 포를 중으로 옮기다.

2) 이에 대해서는 노명희(2004: 229, 예문 65)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65) ㄱ. 은연(隱然)중, 부지(不知)중, 무심(無心)중, 무의식(無意識)중

ㄴ. 은연중에/은연중의/은연중으로/은연중이다, 부지중에/부지중의/부지중으로/부지중이다, 무심중에/ 무심중의/무심중으로/무심중이다, 무의식중에/무의식중의/무의식중으로/무의식중이다.

이 예들은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중’이 어근으로 쓰인 ‘상중(喪中), 병중(病中)’과 유사한 용법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3)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을 비교하자면, 후자는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의 의미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표준》의 ‘중(中)’의 뜻풀이를 논의의 出發點으로 삼고자 한다.

《표준》의 기술 내용 중에서 본고에서 문제 삼는 時間的 개념으로 쓰인 依存名詞 ‘중(中)’과 관련된 항목만을 골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밑줄 및 ①~③의 번호는 인용자.]

(1) 시간 의존 명사 ‘중(中)’의 뜻풀이

① 《표준》Ⅲ「의존명사」「4」

〈주로 ‘중으로’ 꼴로 쓰여〉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

예: 그는 오늘 내일 중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② 《표준》Ⅲ「의존명사」「2」

〈일부 명사 뒤에 쓰여〉〈-는/-던 뒤에 쓰여〉 무엇을 하는 동안

예: 근무 중/수업 중/회의 중

여행하던 중에 만난 사람

중간고사 기간 중에는 도서관을 12시까지 개방합니다.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③ 《표준》Ⅲ「의존명사」「3」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

예: 임신 중/수감 중/재학 중/휴가 중

이와 같이 時間的 개념으로 쓰이는 依存名詞 ‘중(中)’에는 주로 ①~③의 세 가지 用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분포의 측면을 같이 고려할 때, ①의 용법은 ‘시간 명사’가 ‘중(中)’에 선행하고, ②와 ③의 용법은 ‘서술 명사’나 서술동사의 관형사형이 선행한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sup>4)</sup> 본고에서는 이들 ①~③에 대해 각각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일반적인 사전 기술에서는 각각의 用法에 있어서 ‘중(中)’ 앞에 정확히 어떤 要素가 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술이 없는데, 본고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말뭉치”에서 ‘중’과 결합한 모든 예를 추출한 다음, 그것을 정리하여 분류하

4) 단, ②의 “중간고사 기간 중에는...”은 본고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분류될 것이다.

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時間 名詞와 중(中)

먼저 ①의 ‘시간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를 논의해 보자. 우선 ‘중(中)’에 선행하는 ‘시간 명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 ㄱ. {오전/6월/다음달/이 날/정해진 기한<sup>5)</sup>} 중(中)으로/에 다 끝내야 된다.  
 ㄴ. {오전/6월/다음달/이 날/정해진 기한} 내(內)로/에 다 끝내야 된다.  
 ㄷ. {오전/6월/다음달/이 날/정해진 기한} 안(안)으로/에 다 끝내야 된다.  
 ㄹ. {오전/6월/다음달/이 날/정해진 기한} 이내(內)로/에 다 끝내야 된다.
- (3) ㄱ. 보증 기간 중의 서비스는 다 무료예요.  
 ㄴ. 보증 기간 내의 서비스는 다 무료예요.  
 ㄷ. 보증 기간 안의 서비스는 다 무료예요.  
 ㄹ. 보증 기간 이내의 서비스는 다 무료예요.

《표준》에서는 ①의 用法에 대해 “주로 ‘중으로’ 꼴로 쓰여”라고 記述하였으나, 노명희(2004)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으로’ 대신 ‘-에’가 결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의 ‘중’은 ‘내’, ‘안’, ‘이내’로 대치할 수 있다. 또한 노명희(2004)에서는 ‘중으로’와 ‘중에’만 可能하다고 하였으나, 실은 (3)처럼 ‘중의’도 可能하다.

그런데, 이 ①의 用法에서 사용되는 ‘時間 名詞’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것들인가? 예문 (2)를 다시 살펴보면, 그것들이 모두 [特定 期限임이 확인된다. 한편, ‘구체적인 시점’과는 상관없는[시간의 폭을 나타내는 표현은 ‘중’과의 공기가 불가능하다. 다음 예를 보자.

- (4) ㄱ. {삼 일/일주일/한 달/몇 시간/며칠/하루} 중(中)에/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

5) 여기에서의 ‘기한’은 ‘기간’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기간’은 ‘시간의 길이’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시점까지의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 다.
- ㄴ. [삼 일/일주일/한 달/몇 시간/며칠/하루 내(에)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 ㄷ. [삼 일/일주일/한 달/몇 시간/며칠/하루 안(에)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 ㄹ. [삼 일/일주일/한 달/몇 시간/며칠/하루 이내(에)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때, ‘중(中)’을 사용할 수 없지만 ‘중(中)’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내’, ‘안’, ‘이내’는 여전히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다음으로 [特定 期間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의 경우를 논의해 보자. 敘述의 편의상 ‘[特定 期限]+중<sub>1</sub>’, ‘[特定 期間]+중<sub>2</sub>’처럼 ‘중<sub>1</sub>’과 ‘중<sub>2</sub>’를 구별하기로 한다.

- (5) ㄱ. 중간고사 기간 중<sub>1</sub>(에는)으로 도서관을 12시까지 운영한다.
- ㄴ. 중간고사 기간에는 도서관을 12시까지 운영한다.
- ㄷ. 중간고사 기간 안에는 도서관을 12시까지 개방합니다.
- ㄹ. 중간고사 기간 내에는 도서관을 12시까지 개방합니다.
- ㅁ. 중간고사 기간 이내에는 도서관을 12시까지 개방합니다.

‘중(中)<sub>2</sub>’가 결합할 수 있는 助詞는 매우 限定되어 있다. 즉, ‘중<sub>2</sub>에는’만 가능하며, ‘중<sub>2</sub>에’나 ‘중<sub>2</sub>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중<sub>1</sub>’의 경우와는 달리 ‘중<sub>2</sub>’는 ‘내, 안, 이내’와 대치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特定 期限] + {중<sub>1</sub>/안/내/이내}(으로/에/의)  
 [시간의 폭] + {중<sub>1</sub>/안/내/이내}(으로/에)  
 [特定 期間] + {중<sub>2</sub>/안/내/이내}(에는/에/으로)

이와 같은 一般化로 대부분의 경우는 잘 설명되지만 일부 예외도 존재한다. 다음 (7)~(8)에서 제시한 시간 명사들은 모두 (6)의 ‘근일’과 비슷한 의미로 [特定 期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중’과의 공기 가능 여부가 조금 복잡하다.

- (6) ㄱ. 그것은 근일 중(에/으로) 도착할 것이다.  
 ㄴ. 그것은 근일 내(에/로) 도착할 것이다.  
 ㄷ. 그것은 근일 안(에/으로) 도착할 것이다.  
 ㄹ. 그것은 근일 이내(에/로) 도착할 것이다.
- (7) ㄱ. 수일 중(에/으로) 완성해야 된다.  
 ㄴ. 수일 내(에/로) 완성해야 된다.  
 ㄷ. 수일 이내(에/로) 완성해야 된다.  
 ㄹ. 수일 안(에/으로) 완성해야 된다.
- (8) ㄱ. 그것은 (빠른 시일/가까운 시일/조속한 시일/빠른 시간) 중(에/으로) 도착할 것이다.  
 ㄴ. 그것은 (빠른 시일/가까운 시일/조속한 시일/빠른 시간) 내(에/로) 도착할 것이다.  
 ㄷ. 그것은 (빠른 시일/가까운 시일/조속한 시일/빠른 시간) 안(에/으로) 도착할 것이다.  
 ㄹ. 그것은 (빠른 시일/가까운 시일/조속한 시일/빠른 시간) 이내(에/로) 도착할 것이다.

즉, 이처럼 (6)의 ‘근일’의 경우는 문제없으나, (7)의 ‘수일’의 경우<sup>6)</sup> ‘수일 중에’가 부자연스럽고, (8)과 같은 경우는 아예 ‘중’과의 공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예외적 양상이 나타나는지는 현재로서 설명할 수 없고, 그 原因을 밝히는 일은 앞으로의 課題이다.

### III. 持續動詞와 中(中)

본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중’의 用法 중 ②의 用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에서는 “일부 명사 뒤에 쓰여”라고 기술되어 있지

6) ‘수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수일 걸릴 것 같다’의 ‘수일’이며, 이때의 ‘수일’은 ‘머칠’의 의미와 유사하다. 다른 하나는 ‘수일’ 내로 確답을 드리겠습니다의 ‘수일’이며, 이 경우는 흔히 ‘수일 내’의 꼴로 쓰이는데, 이것은 ‘근일’의 의미와 비슷하다.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후자의 경우다.

만, 우리는 그 ‘一部 名詞’란 도대체 어떤 名詞인가 하는 問題를 提起해 볼 수 있다. ‘21세기 세종계획 현대어 말뭉치’를 이용하여 조사해 보면, 그 先行要素는 대부분이 ‘하다’와 結合할 수 있는 ‘敍述名詞’들이며 대부분이 ‘중이다’의 모습으로 나타남이 확인된다.<sup>7)</sup> 우리는 여기서 그 ‘敍述名詞’들의 特徵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에 우리는 상(相) 問題를 논의할 때 ‘~ 중이다’와 ‘-고 있다’를 동일한 ‘진행상’으로 묶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중(中)’을 ‘-고 있다’와 對照하면서 觀察해 보고자 한다.

- (9) ㄱ. 공부 중, 진행 중, 추진 중, 조사 중, 준비 중, 공사 중, 거주 중, 체류 중  
 ㄱ'. 공부하다, 진행하다, 추진하다, 조사하다, 준비하다, 공사하다, 거주하다, 체류하다  
 ㄴ. '결석 중, '합격 중, '졸업 중, '목격 중, '사망 중, '탈락 중, '우승 중  
 ㄴ'. 결석하다, 합격하다, 졸업하다, 목격하다, 사망하다, 탈락하다, 우승하다

(9ㄱ, ㄴ)은 각각 ‘중’과의 結合이 가능한 예들과 불가능한 예들이다. (9ㄱ)은 모두 순간동사(를 만드는 서술명사)가 아니라 지속동사(를 만드는 서술명사)가 ‘중’과 結合한 예들이다. (9ㄴ)처럼 瞬間動詞의 경우는 ‘중(中)’과 의미적으로 衝突하기 때문에 ‘중’과 共起할 수 없다. 노명희(2004)에서도 “중’이 ‘어기 X를 하는 동인’이나 ‘어기 X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성<sup>8)</sup>이 있는 명사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취하는

7) 통계를 내보면, ‘중’이 취하는 조사에 따라 4가지가 구분된다.

유형	선행요소	‘중(中)’	후행요소	의미
A	일반명사 (예: 사람, 작품...)		에서	‘가운데’
B	일반명사 (예: 이유, 사람...)		의	‘가운데’
C	일반명사/서술명사 (예: 얘기, 여행...)		에	‘가운데’, ‘도중’
D	서술명사 (예: 공부, 진행...)	이다	‘어떤 상태에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중(中)’은 유형 D에 속하는 ‘중(中)’이다. 유형 C의 ‘중(中)’ 앞에도 ‘서술명사’가 올 수 있긴 하지만,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유형 D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유형 D의 예들 중에는 한자어 서술명사뿐만 아니라 외래어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 ‘인터뷰 중’, ‘세일 중’, ‘캠프 중’, ‘리모델링 중’ 등이다.

8) 노명희(2004)는 ‘순간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동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것이 자연스럽고,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결합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sup>9)</sup>

(9-1)의 ‘중(이다)’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등과 대치할 수 있다.

- (10) ㄱ. 나 지금 공부 중이야.  
 ㄴ.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ㄷ.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ㄹ.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 (11) ㄱ. 나 지금 한국에 체류 중이야.  
 ㄴ. 나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ㄷ. 나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이야.  
 ㄹ. 나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중이다.

一般的으로 瞬間動詞는 ‘중(中)’과 共起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어떤 文脈이 주어지면 可能해진다.

- (12) ㄱ. \*시험을 합격 (중이다/하고 있다/하는 중이다)  
 ㄴ. 난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중이야.  
 ㄷ. 난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하고 있어.  
 ㄹ. 난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하고 있는 중이야.  
 ㅁ. 난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하는 중이야.
- (13) ㄱ. \*요가 학원을 결석 (중이다/하고 있다/하는 중이다).  
 ㄴ. 요가 학원을 이틀째 결석 중이다.  
 ㄷ. 요가 학원을 이틀째 결석하고 있다.  
 ㄹ. 요가 학원을 이틀째 결석하고 있는 중이다.  
 ㅁ. \*요가 학원을 이틀째 결석하는 중이다.

---

있으나, 이 용어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지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9) 노명희(2004)는 ‘가입하다’를 순간동사로 보고 ‘가입 중’은 허용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중이다”는 매우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즉, 어떠한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여러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증받는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다’는 충분히 지속동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단독으로는 순간적인 사건이라도, 이처럼 ‘연속 ~째 ~ 중이다’와 같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문맥이 주어지면 지속적인 사건이 되어, ‘중’과의 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13口)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N 중이다’와 ‘V-는 중이다’는 類似하지만 서로 다른 部分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간동사는 ‘중’과 공기할 수 없다는 일반화에 대해, 약간 예외적인 현상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중단(中斷)하다’, ‘중지(中止)하다’와 같은 瞬間動詞들은 아래 (14)와 같은 文脈에서 쓰일 때, 화자에 따라 약간의 허용도의 차이를 갖기는 하지만, 違和感이 거의 없다.

- (14) ㄱ. 현재 생산이 중단 중입니다.  
 ㄱ'.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ㄴ. Windows 8.1에서 Windows Update가 계속 중지 중입니다.  
 ㄴ'. Windows 8.1에서 Windows Update가 계속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과상태의 지속’을 표현하고 있고, ‘중이다’와 ‘되어 있다’가 대치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IV. 狀態動詞와 중(中)

이제 본장에서는 狀態動詞(를 만드는 서술명사)가 ‘중’과 공기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들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類型으로 분류된다.

1. 【‘구속 중’ 류】 ‘하다’, ‘되다’가 모두 可能하지만, ‘되다’ 쪽의 빈도가 높다.
2. 【‘임신 중’ 류】 動作이 일어나는 것이 瞬間이지만 結果 狀態가 오래 유지된다.
3. 【‘진전 중’ 류】 “~중이다”가 “~되고 있다”로만 대치 가능하다.
4. 【‘성업 중’ 류】 狀態性이 매우 강하다.
5. 【기타 부류】 위와 같은 다른 표현으로 대치할 수 없는 부류다.



#### 4.1. ‘구속 중’ 類

여기에는 ‘구속 중’, ‘수감 중’, ‘계류 중’, ‘파견 중’ 등이 속하는데, 이들은 ‘하다’, ‘되다’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하다’라면 능동, ‘되다’라면 피동을 나타낸다. ‘구속 중’은 능동문에 나타나면 ‘구속하고 있다’, 피동문에 나타나면 ‘구속되어 있다’의 의미가 된다.

- (15) ㄱ. 그는 지금 구속 중이다.  
 ㄱ'. 그는 지금 구속되어 있다.  
 ㄴ. 형사는 그를 지금 구속 중이다.  
 ㄴ'. 형사는 그를 지금 구속하고 있다.
- (16) ㄱ. 그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ㄱ'. 그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ㄴ. 교도관들은 그를 지금 막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ㄴ'. 교도관들은 그를 지금 막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
- (17) ㄱ. 사건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ㄱ'. 사건은 아직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ㄴ. 그는 사건을 고의적으로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ㄴ'. 그는 사건을 고의적으로 아직 법원에 계류하고 있다.
- (18) ㄱ. 파주사업소에 파견 중이다.  
 ㄱ'. 파주사업소에 파견되어 있다.  
 ㄴ. 그는 용역 직원들을 파주사업소에 파견 중이다.  
 ㄴ'. 그는 용역 직원들을 파주사업소에 파견하고 있다.

(15~18) 각각의 (ㄱ)의 ‘~중이다’는 ‘~되어 있다’, (ㄱ')의 ‘~중이다’는 ‘~하고 있다’로 대체 가능하다. (15ㄱ)처럼 “그는 지금 구속 중이다”라고 하면 ‘그는 지금 구속된 상태이고 갇혀 있다’라는 뜻이고, (15ㄴ)처럼 “형사는 그를 지금 구속 중이다”는 ‘현장 검거’일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다.

‘구속 중’은 능동문에 출현하는지 피동문에 출현하는지에 따라 ‘~하고 있

〈표 1〉 21세기 세종말뭉치 ‘구속 중’ 류의 출현통계

N 중	합계	‘N되어 있다’에 해당	‘N하고 있다’에 해당
구속 중	31	31	0
계류 중	64	64	0
수감 중	56	56	0
파견 중	6	6	0

다’와 ‘~되어 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말뭉치의 빈도를 본다면, ‘구속되어 있다’의 의미로 쓰인 ‘구속 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21세기 세종말뭉치를 이용해 통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고에서는 위의 예문 (15)에 나오는 예들을 ‘구속 중 類’라고 규정한다. 이 類型에 속한 敘述名詞는 ‘중’과 공기했을 때 ‘重義性’을 지닌 경우가 많다. ‘폐쇄 중’을 예로 들어 보자.

- (19) ㄱ. 응급실 폐쇄 중이다.  
 ㄴ. 응급실을 폐쇄하고 있다.  
 ㄷ. 응급실이 폐쇄되어 있다.

(19ㄱ)의 ‘폐쇄 중’은 (19ㄴ)의 ‘폐쇄하고 있다’의 의미와 (19ㄷ)의 ‘폐쇄되어 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9ㄴ)은 ‘막 폐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며, (19ㄷ)은 ‘이미 폐쇄되어 닫혀 있다’라는 뜻이다.

#### 4.2. ‘임신 중’ 類

여기서 ‘妊娠 중’ 같은 類型들을 따로 分類하는 이유는 4.1.에서는 記述했던 ‘拘束 중 類’와 달리 ‘妊娠 중’이라는 의미를 表現하고자 할 때 ‘임신하고 있다’ ‘임신하고 있는 중이다’ 등 表現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임신 중’은 오히려 ‘임신했다’의 의미와 가깝다. ‘임신 중’ 類의 예들은 다음 (20)과 같다.

(20) 입원(入院) 중, 외출(外出) 중, 임신(妊娠) 중, 부상(負傷) 중

- (21) ㄱ. 나 입원 중이야.  
 ㄴ. \*나 입원하고 있어.  
 ㄷ. 나 입원하고 있는 중이야.  
 ㄹ. 나 입원했어.

- (22) ㄱ. 나 지금 외출 중이야.  
 ㄴ. 나 지금 외출하고 있어.  
 ㄷ. 나 지금 외출하고 있는 중이야.  
 ㄹ. 나 외출했어.

(21)은 ‘입원 중’, (22)은 ‘외출 중’과 관련된 예문이다. (21ㄴ)은 어색한 문장이다. (21ㄷ)은 비문은 아니지만 (21ㄱ)의 ‘입원중’의 의미와 다르다. (21ㄷ)은 지금 ‘입원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입원 접수 같은 것을 하면서 입원 準備를 하고 있다’를 뜻하기 때문이다. (21ㄹ)은 (21ㄱ)의 의미와 같다. ‘외출 중’의 경우는 ‘입원 중’과 약간 다른 것은 (22ㄴ) ‘외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비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22ㄴ)은 (22ㄷ)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22ㄱ)의 ‘외출 중’이 表現하고자 하는 의미와 다르다. 즉, (22ㄱ)은 ‘지금 자리를 비우고 이미 어디에 간 상태’지만 (22ㄴ)과 (22ㄷ)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외출할 準備를 하고 있는 것이다. (22ㄹ)과 (22ㄱ)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21)과 (22)를 통해서 ‘외출 중’ 류는 ‘~했다’와 대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4.3. ‘진전 중’ 類

여기에 속하는 예는 4.1. ‘拘束 중’ 類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비슷한 점은 他動詞로 쓰이는 ‘進展하다’도 있고, 自動詞로 쓰이는 ‘進展되다’도 있다. 다른 점은 4.1. ‘拘束 중 類’는 일반적으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拘束되어 있다’로 해석되지만, ‘進展 중’은 일반적으로 進行을 나타내는 ‘進展되고 있다’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이 類型에 속하는 예는 ‘論難

중'도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23) ㄱ. 양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전(進展) 중이다.  
 ㄴ. 양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전(進展)되고 있다.
- (24) ㄱ. 그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ㄴ. 그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 4.4. '성업 중' 類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들은 위에서 記述한 動詞와 달리 狀態性<sup>10)</sup>이 강한 예들이다. 이 類型에 속하는 語彙들은 다음과 같다.

- (25) 성업<sup>11)</sup> 중/불화 중/성황 중

(25)은 '성업 중' 類에 속하는 語彙들이다. 이때의 '敍述名詞+중이다'는 '~하고 있다' '~되고 있다' '~되어 있다'로 代置할 수 없다. 다만 '敍述名詞+하다'나 '敍述名詞+이다'로 代置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26) ㄱ. 그 가게가 요새 아주 성업 중이다.  
 ㄴ. \*그 가게가 요새 아주 성업하고 있다.<sup>12)</sup>  
 ㄷ. \*그 가게가 요새 아주 성업되어 있다.  
 ㄹ. \*그 가게가 요새 아주 성업되고 있다.

- 10) ㄱ. 현재 보유 중인 자동차는 몇 대인가?  
 ㄴ. 현재 다섯 대 보유 중입니다.

위에 있는 예문은 고영근(1980)에서 제시된 예문이다. 고영근(1980)에서는 '중이다'는 [+상태성]+[순간성]+[결과성]의 動作類를 띤 動詞에도 결합된다고 하였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는 '하다'와 결합하는 '보유'는 '[+순간성]을 띤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 11) 김창섭(1997: 9) '성업(盛業)'을 동사성 어근으로 보고 있다.  
 12) 사람마다 직관 차이가 보인다.

ㄹ. 그 가게가 요새 아주 성업이다.

- (27) ㄱ. 요즘 시어머니와 불화 중이다.  
 ㄴ. \*요즘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있다.  
 ㄷ. \*요즘 시어머니와 불화되고 있다.  
 ㄹ. \*요즘 시어머니와 불화되어 있다.  
 ㅁ. 요즘 시어머니와 불화하다.

#### 4.5. 기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예들의 性格은 이상에서 다뤘던 예들의 性格과 많이 다르다. 즉, 이 類型에 속하는 것들은 ‘~하고 있다’, ‘~되고 있다’, ‘~되어 있다’, ‘~했다’, ‘~하다’나 ‘~이다’로 대치할 수 없다. 오직 ‘~중이다’의 꼴로 쓰인다. 여기에 속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28) 분규 중/부재중

#### V. 結論

지금까지 時間을 나타내는 依存名詞 ‘중(中)’에 관한 여러 問題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中)’은 그 쓰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時間 名詞’ 뒤에 ‘중(中)’을 結合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特定 期限] + {중/안/내/이내}(으로/에/의) (예: 내일 중(으로/에) 연락 주세요.)  
 [시간의 폭] + {중/안/내/이내}(으로/에) (예: 삼일 \*중(으로/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돼요.)  
 [特定 期間] + {중/안/내/이내}(에는/에/으로) (예: 중간고사 기간 중(에는/에/으로) 도서관 12시까지 운영한다.)

둘째, 一般적으로 ‘瞬間動詞’와 結合할 수 없지만(예: ‘요가 학원 결석 중 이다.’), 어떤 文脈에서는 일부 ‘瞬間動詞’도 ‘중(中)’과 結合할 수 있다. 즉, 앞에 ‘일회성의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때 사용 가능하다.(예: 요가 학원 이틀째 결석중이다.)

셋째, 類型은 ‘動作性’보다 ‘狀態性’이 더 선명한 명사 뒤에 ‘중(中)’이 結合하는 경우이다. 앞에 先行하는 名詞에 따라 다시 5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4.1절) ‘구속 중’ 류: ‘구속 중’ 일반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로 해석
- (4.2절) ‘임신 중’ 류: ‘임신 중’ 일반적으로 ‘임신했다’로 해석
- (4.3절) ‘진전 중’ 류: ‘진전 중’ 일반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로 해석
- (4.4절) ‘성업 중’ 류: ‘성업 중’ 일반적으로 ‘성업이다’로 해석
- (4.5절) ‘기타’ 류: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 ‘부재중’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問題도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근일’ 뒤에는 ‘중’이 올 수 있는데, ‘근일’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가까운 시일’ 뒤에는 ‘중’이 올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왜 ‘이틀째 결석 중이다’는 가능한데, ‘이틀째 결석하는 중이다’는 비문이 되는가 하는 問題인데, 결국 ‘~ 중이다’와 ‘~는 중이다’ 사이에 어떠한 差異點이 있는가의 問題이다.

## 참고문헌

- 高永根(1980), 국어 進行相 형태의 處所論的 해석, 『語學研究』 16-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41-56.
- 김창섭(1997), ‘하다’동사 형성의 몇 문제, 『冠嶽語文研究』 2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47-267.
- 김창섭(2001),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語學研究』 3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3-85.
- 김창섭(2007), 부접명사의 설정과 식별, 『국어학』 50, 국어학회, 27-55.
- 노명희(2004), 『현대국어한자연구』, 국어학회. 227-232.
- 노명희(2003), 구에 결합하는 접미한자어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69-95.
- 盧明姬(2003), 語根類 漢字語의 문법적 특성, 『語文研究』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96.
- 董志翹(2012), 表示過程、狀態持續的“中”及其來源, 『日本研究』 13, 부산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63-80.
- 문숙영(2009), 시제의 의미 및 사용과 관련된 몇 문제,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27.
- 박승혜(2013), ‘지’ 구문을 통한 한-중 표현기법의 차이 연구, 『한중경제문화연구』 1, 한중경제문화학회, 209-229.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안신혜(2014), 의존명사의 의미와 문법화,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69-92.
- 이서란(1998), ‘한자어 + 하다’동사 연구, 『冠嶽語文研究』 2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81-303.
- 임서현(2004) “한국어 동사 ‘하다’와 사건개체유형 명사의 결합구조”,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 학위 논문.
- 정연주(2016), 의존명사 ‘줄’의 기능 특화 양상, 『영주어문』 34, 영주어문학회, 65-94.
- 조용준(1996), 서술성 명사의 피동화에 대한 고찰, 『한말연구』 2, 한말연구학회, 231-262.
- 趙宰亨(2009), ‘-中’의 起源과 形態에 대한 再考, 『語文論集』 42, 중앙어문학회, 137-164.